



## 미 증시, 부채한도 표결 앞두고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30 일(화) 미국 증시는 미 부채한도 상향에 잠정합의했다는 보도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최종 타결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경제지표가 부진한 영향으로 혼조세 마감. (다우 -0.15%, S&P500 0%, 나스닥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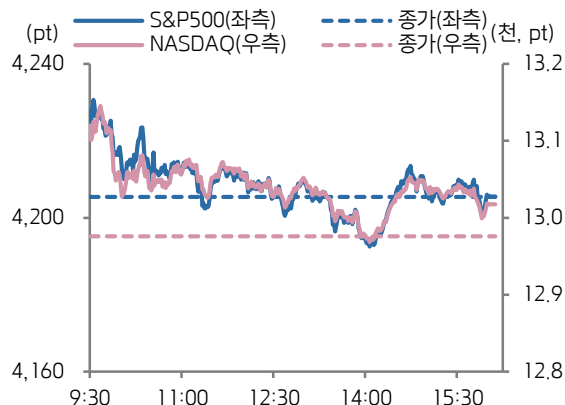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주말 동안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기로 잠정 합의. 그러나 민주당,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4일을 목표로 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 하원 운영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을 상정하며 법안의 토론 규칙을 상정, 절차상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본회의 심의로 넘어갈 수 있음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 의원과, 민주당 소속 4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화당 강경파 2명의 위원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매카시 의장은 합의안을 "이제까지 가졌던 법안 중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며 내달 5일 이전 법안 표결을 위해 충분한 표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4%(예상 전월 0.2%) 기록하며 두달연속 상승. 시애틀(yoy -12.4%)과 샌프란시스코(-11.2%) 등 서부 대도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마이애미(7.7%), 탬파(4.8%), 샬럿(4.7%) 등 동남부 도시들의 상승세 지속. 집계측은 "두 달의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3월 결과는 작년 6월 시작됐던 집값 하락세가 아마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 3월 FHFA 주택가격지수 역시 전월대비 0.6%(예상 0.2%, 전월 0.7%) 상승. 그러나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2.3(예상 99.0, 전월 103.7)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71.5로 전월 71.7 대비 하락. 5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9.1(예상 -18.0, 전월 -23.4) 기록하며 예상치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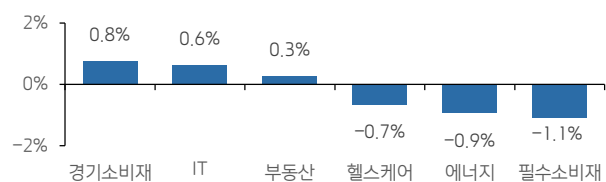
경기소비재(+0.8%), IT(+0.6%), 부동산(+0.3%) 업종은 강세, 필수소비재(-1.1%), 에너지(-0.9%), 헬스케어(-0.7%) 업종은 약세. 엔비디아(2.99%)는 개장 직후 7%대 강세 보이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 장중 409달러, 시총 1조달러를 돌파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출회되며 9,900억 달러 선에서 마감.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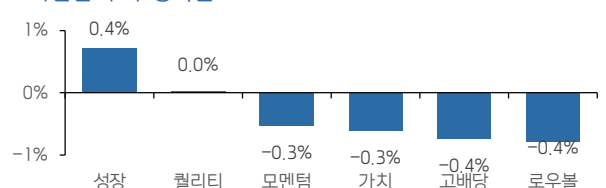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5.52	+1.04%	USD/KRW	1,324.96	+0.23%
코스피 200	341.50	+1.3%	달러 지수	104.05	-0.15%
코스닥	851.50	+0.98%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293.51	+1.45%	USD/CNH	7.09	+0.02%
S&P500	4,205.52	+0%	USD/JPY	139.82	+0.02%
NASDAQ	13,017.43	+0.32%	채권시장		
다우	33,042.78	-0.15%	국고채 3년	3.555	+2.8bp
VIX	17.46	+0%	국고채 10년	3.653	+0.8bp
러셀 2000	1,767.29	-0.32%	미국 국채 2년	4.450	-11.2bp
필라. 반도체	3,549.39	+0.1%	미국 국채 10년	3.687	-11.2bp
다우 운송	13,965.64	+0.45%	미국 국채 30년	3.890	-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1.58	-0.66%	WTI	69.46	-4.42%
MSCI 전세계 지수	652.38	-0.17%	브렌트유	73.54	-4.58%
MSCI DM 지수	2,825.60	-0.17%	금	1977.1	+0.71%
MSCI EM 지수	970.32	-0.15%	은	23.24	0%
MSCI 한국 ETF	63.44	+0.54%	구리	366.3	-0.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미국 부채한도 관련 뉴스플로우 2. 최근 동반 급등했던 AI 관련주들의 차익실현물량 출회 가능성 3. 미국 테슬라 등 전기차주 강세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주말 중 합의 기대감을 높였던 부채한도는 31 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강경파들의 반대 의견들이 등장하면서 합의안 통과 불확실성을 증시에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날 미국 증시의 건조한 반응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시장 참여자들은 막판 진통 현상을 겪으면서 끝내 타결할 것이라는 과거의 부채한도 협상 패턴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1 일(현지시간 8 시 30 분) 하원부터 시작하는 표결 과정에서도 증시 뉴스플로우 상 부채한도가 헤드라인을 차지하겠으나, 단기적인 가격의 진폭만 제한적으로 만들어내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더 나아가, 부채한도 이슈보다는 OPEC+ 회의 불확실성, 중국 등 글로벌 수요 우려 등으로 4%대 급락한 국제유가가 시사하듯이, 금주 중 예정된 미국 ISM 제조업 PMI, 비농업부문 고용, 한국 수출 등 경기 및 실적, 연준 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에 대비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주말 중 전해진 미국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 속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AI 및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1.0%).

금일에는 미국 부채한도 불확실성, 새벽 중 전해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 등 국내 지정학적 요인에도, 미국 나스닥 강세 영향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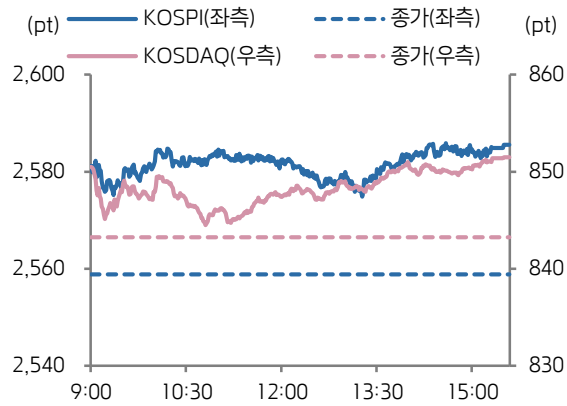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지난주 이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단기 주가 되돌림 가능성이 상존. 반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4.1%), 포드(+4.1%) 등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머스크의 중국 방문 소식 등 개별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금일 업종 간 단기 순환매가 예상되는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 충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금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하단이 건조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실적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 일단 12 개월 선행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216.5 조원으로 지난 3 월 192.8 조원을 저점으로 약 20 조원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도 3 월 -25.0% -> 4 월 -24.1% -> 5 월 -19.2%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같은 맥락에서 지난 3 년(2020~2022 년) 동안 약 57 조원 대규모 코스피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5 월 30 일까지 약 13 조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것도 실적 전망 바닥 확인에 베티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이와 관련해 2010 년(21.4 조원 순매수), 2016 년(10.8 조원 순매수)과 같이 실적 전망 바닥 확인 후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순매수에 나섰다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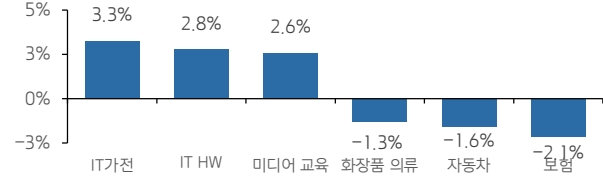
물론 미국 침체 불안이 높은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 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 내 주력 업종들의 특성을 고려 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YoY 로 12 개월 영업이익 전망 플러스 증가율 진입)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연말 이후 주요국들의 순차적인 경기 개선 및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등을 감안했을 때 이익전망 바닥 확인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제는 유효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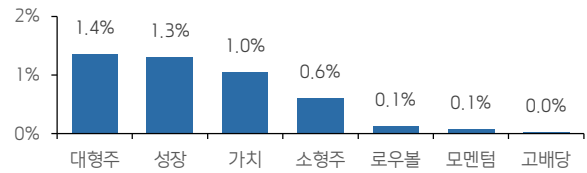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